

세계정당연대의 원상복합인 공조프로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당일 출퇴근) IC 이수준 코르티지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허정무호 “반갑다! 지성·영표”

‘카타르전 무승부(1-1)로 분위기가 침체한 대표팀에 활기를 불어 넣어라’ ‘산소 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축구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둘의 가세에 따른 전력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늘 합류...사우디전 앞두고 팀에 활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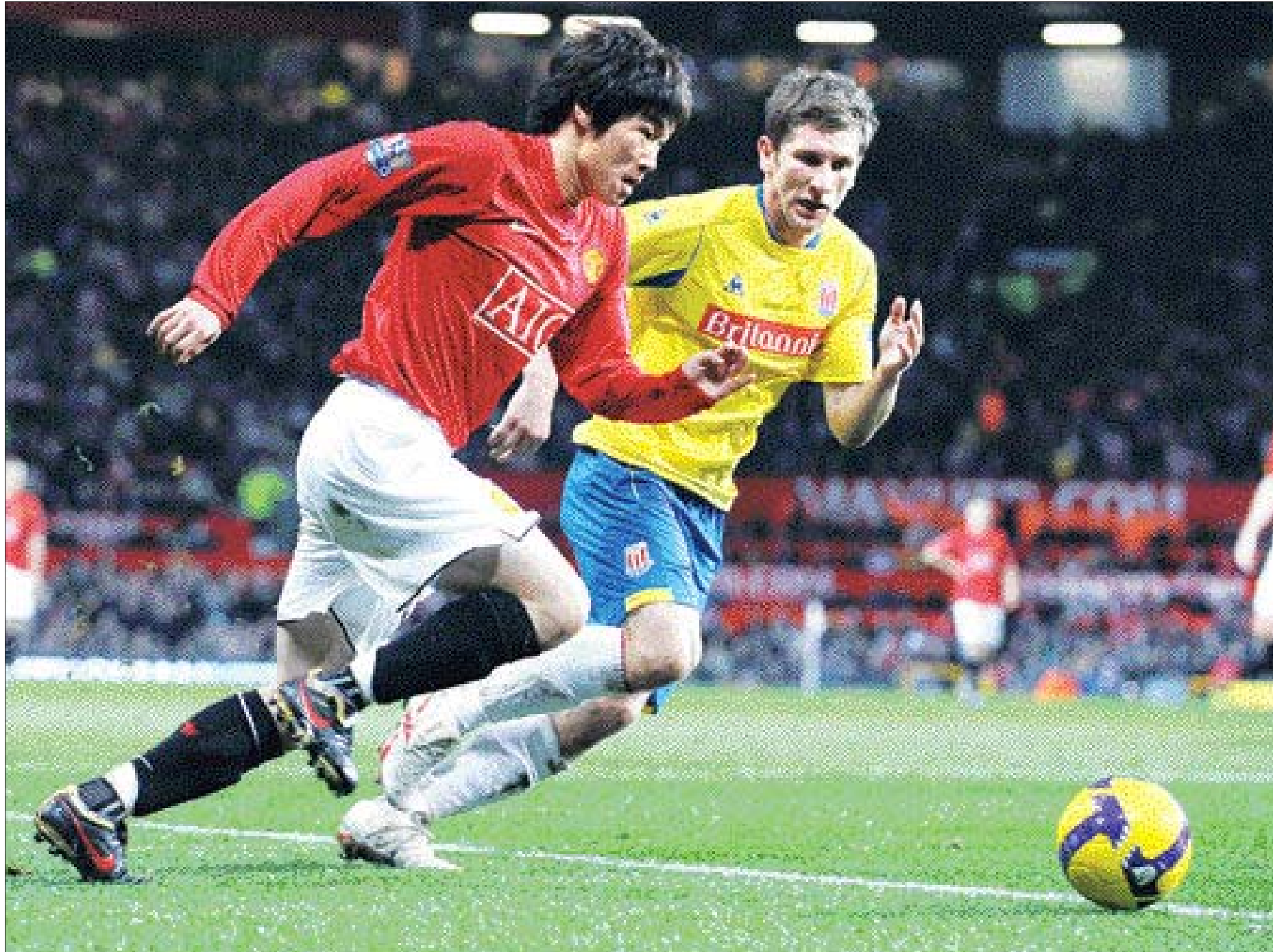
카타르전 1-1 아쉬움 털고 전력 상승 기대

박지성은 대표팀의 ‘캡틴’이자 허정무호 공격의 핵이고 이영표는 오른쪽 풀백을 책임질 수비라인의 보배다. 16일 새벽(한국시간) 치러진 스톡홀름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62분을 뛰었던 박지성과, 같은 시간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전에 출격해 10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활약했던 이영표는 현지시각으로 16일 오후 7시(한국시간 17일 새벽 1시)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다. 하루를 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직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고생을 마다치 않고 카타르로 이동한 건 그들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대표팀에 조기 합류해 선·후배들

과 융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둘 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전(한국시간 20일 새벽 1시 35분)에 선발 출격하는 건 때아닌 당연하다. 유럽 무대에서 기량을 인정받고 있고 허정무 감독의 강한 신임을 받는 것도 공통점이다. 박지성의 가세는 반갑다. 박지성 대신 1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거미손’ 골키퍼 이은재(수원)가 임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을 이끌었지만 대표팀의 실질적인 리더인 박지성이 돌아와 분위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어서다. 대표팀은 지난 15일 치러졌던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며 기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기본 좋은 승리로 자신감을 충전하고 사우디로 넘어가려고 했던 태극전사들에게는 아쉬운 한판이었다. 그러기에 박지성의 도하 입성은 대표팀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선수들과 격의 없는 분위기로 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 4-1 대승을 이끌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어서다. 박지성 자신도 당시 왼쪽 윙포워드를 맡아 1골 1도움으로 승리를 견인했다. 최근 소속팀 맨유에서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며 기량을 확실하게 검증받은 데

다 중동에서도 인기가 높은 박지성의 합류는 여가게 처진 국내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표팀 부주장인 이영표도 경기에서 편 피로도 잊고 합류했다. UAE전 때 왼쪽 풀백을 맡았던 김동진(제너트)이 허벅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이영표의 여가는 더욱 무거워졌다. 왼쪽 풀백을 맡을 김치우(서울)와 함께 포백 수비라인의 좌우 날개를 맡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공세를 막아내는 한편 활발한 오버래핑에 이은 날카로운 크로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표는 특유의 친근감 있고 푸근한 태도로 후배들을 다독여 1989년 10월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0으로 꺾은 이후 19년 만의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이다. 허정무호의 ‘천군만마’ 박지성과 이영표의 대표팀 합류가 어느 정도 전력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사선 왼쪽)이 16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벌어진 2008~2009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스톡홀름의 리차드 크레스웰과 공을 두고 있다. 맨유가 5-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골 결정력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

프로축구 강원FC 초대 감독 최순호씨

박지성 맨유 흡피서 밝혀

“기회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안 된다. 오늘 같은 기회가 생기면 골로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27·이하 맨유)이 골 결정력 향상을 과제로 꼽았다. 박지성은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8~2009 프리미어리그 스톡홀름 시티와 홈 경기를 치르고 나서 맨유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도 골을 넣을 기회에서 실수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면 안 된다. 다음 경기에서 오늘 같은 기회가 생긴다면 골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좀 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이날 선발 출전해 부진하지

라운드를 누비다 후반 17분 대니 웰벡과 교체됐고, 맨유는 5-0 대승을 거뒀다. 박지성은 최근 팀이 치른 세 경기에 연속 선발 출전했지만 득점은 물론 공격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박지성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아스널(1-2 패)에 패했다. 이번 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어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고 나서 올 시즌 변화에 대해 묻자 “나이가 스물일곱이라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즌에 따라, 상대팀에 따라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또 무엇을 해야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지성은 또 “최근 일주 동안 세 경기를 뛰었지만 현재로서는 몸 상태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로 무대 5년만에 복귀 구체적 계약조건 미공개



프로축구 15번째 구단으로 내년부터 K-리그에 참여하게 될 강원FC(가칭)가 초대 사령탑으로 최순호(46·사진) 울산 현대미포조선 실업축구팀 감독을 낙점했다. 최순호 감독은 16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8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 수원시청과 홈 경기를 치르기에 앞서 “강원FC가 창단 팀이라 사명감을 느끼고 비전도 있다고 보고 감독직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밝

혔다. 이로써 최 감독은 2004년 말 포항 스틸러스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5년 만에 다시 프로 무대로 복귀하게 됐다. 최 감독은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청주상고와 광운대를 졸업한 최 감독은 1980년대 한국 축구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던 스타 출신 사령탑. 1992년 현역에서 은퇴해 프랑스로 지도자 연수를 떠나기도 했던 그는 1993년부터 포항에서 코치와 2군 감독을 맡다 2001-2004 시즌에는 정식으로 포항 사령탑을 지내기도 했다. 최 감독은 2004년 포항 감독에서 물러났지만 2006년부터 2부리그 격인 내셔널리그 미포조선을 이끌고 지난 시즌 통합우승, 올 시즌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연합뉴스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1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벌어진 ‘에릭 봉파르 트로피 피겨 스케이팅 그랑프리대회’에서 여자 프리 스케이팅을 하다가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라이벌’ 日 아사다 마오 점프 난조...우승 ‘물거품’

3번의 점프서만 가산점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역전 우승을 노렸던 ‘연아 라이벌’ 아사다 마오(18·일본)의 꿈이 점프 난조에 꺾이고 말았다. 아사다는 16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엉덩방아를 찧고 7개 점프 과제에서 3개만 가산점을 받는 어려움 속에 109.47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58.12점)을 합쳐 총점 167.59점에 머물렀다. 자신의 최고점(199.52점)에 무려 31.93점이나 떨어지는 기록이었다. 지난 그랑프리 2차 대회 우승자 조애니 로세트(캐나다)는 총점 180.73점으로 아사다와 점수 차를 13.14점으로 벌리면서 가깝게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임규태 2주 연속 단식 우승

ATP 말레이시아 퓨처스 2차대회

임규태(422위·삼성증권)가 남자프로테니스(ATP) 말레이시아 퓨처스 2차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형택(135위·삼성증권)은 17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TP 게이 오펜린지대회에 나가 1회전에서 예선 통과 선수와 맞붙게 됐다. 이 대회에는 전웅선(247위)도 출전해 역시 1회전을 예선 통과 선수와 치른다. /연합뉴스



16일(한국시간) 2008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축구 월드컵 결승에서 미국을 2-1로 꺾고 초대 챔피언에 오를 북한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월드컵 초대 챔프

美와 연장 접전 끝 2-1 승 17세 이하 여자축구

북한이 미국을 꺾고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축구월드컵 초대 챔피언이 됐다. 북한은 16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 허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FIFA U-17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미국을 2-1로 꺾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시작된 이 대회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세계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2006년 러시아에서 열린 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 남북한 각각 대표팀을 통틀어 FIFA 주관대회 첫 우승을 차지한 북한은 이번에 U-17 대표팀마저 세계를 제패, 여자 청소년축구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비록 한 골 차 승리였지만 슈팅 수 31-16, 유효슈팅 수 14-3에서 보듯 북한이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전반 2분 만에 골키퍼 홍명희의 자책골로 어이없이 선제골을 내주고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갔다. 북한은 결국 후반 32분 김은향의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연합뉴스